

1. 구원은 믿음으로인가? 행위로인가?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행위에 의한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해 어떻게 배우셨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질문은 초대 교회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온 가장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28, 로마서 5:1, 갈라디아서 3:24 등에서 일관되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강조합니다. 후대 종교개혁가들은 이를 근거로 “이신칭의”(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라는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왜곡되어, 마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이해되었고, 이는 교회의 타락과 세상의 비난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 야고보는 “믿음만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약2:24)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을 반박하는 듯 보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대목 때문에 야고보서를 낮게 평가하며 “지푸라기 서신”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한국 교회도 여전히 바울의 서신은 강조하면서, 야고보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이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행위에 의한 것인가? 바울이 옳은가? 야고보가 옳은가?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구원이 믿음? 행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을 둘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바라봄으로 생긴 문제입니다.

사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복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이분법으로 단순화하려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요점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약 2:17-18). 변화와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약 2:20-26).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삶에 선행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닐 것입니다(약 2:14, 17, 20, 26).

바울도 본질적으로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엡 2:8-9)고 분명히 말한 후, 즉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엡 2:10)고 덧붙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22-23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을 나열합니다.

따라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길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근거가 오직 믿음임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그 믿음이 참되다면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며,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선한 행위로 열매 맺게 됩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여 서로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뿌리로 하고 행위를 열매로 이해할 때 두 사도의 가르침은 온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내 삶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나에게 ‘믿음과 행위’ 중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내 삶에서 ‘믿음 없는 행위’나 ‘행위 없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야고보의 가르침이 내 삶에 도전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 _____

-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바울의 가르침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을까?

→ _____

- 나의 믿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 _____

-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행위가 함께 드러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근거를 오직 믿음에 두되, 그 믿음이 헛된 말로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열매 맺게 해 주세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고,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